

[기윤실-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모임]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 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평창동 대화의집(종로구 평창 6길 35)
-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크리스찬아카데미
- 발제 : 김경재 명예교수(한신대), 손봉호 석좌교수(고신대)
- 논찬 : 배종석 공동대표(기윤실), 이상철 원장(크리스찬 아카데미)
- 참여자(무순)

기윤실측 초청 참여자		크리스찬 아카데미측 초청 참여자	
성함	직위	성함	직위
손봉호	기윤실 자문위원장, 고신대 석좌교수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백종국	기윤실 이사장,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배종석	기윤실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교수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오디세이학교 교사	이상철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조성돈	기윤실 본부장, 실천신대 교수	백소영	강남대 교수
조주희	기윤실 이사, 서울성암교회 담임목사	김종구	세신감리교회 담임목사
강호숙	기독교인문학 연구원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김형국	나들목교회 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목사	안재웅	YMCA전국연맹 이사장
박성철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장상	WCC 아시아 회장
		하성웅	EYCK 총무



목 차

발 제

허구적 이념들에 갇힌 진보-보수 틀을 깨고 넘어설 수 있을까? 03

/ 김경재 명예교수 한신대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역할 10

/ 손봉호 석좌교수 고신대

논 찬

김경재 교수 발제에 대한 논찬 15

/ 배종석 기윤실 공동대표

손봉호 교수 발제에 대한 논찬 19

/ 이상철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대 화 23

허구적 이념들에 갇힌 진보-보수 틀을 깨고 넘어설 수 있을까?

-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1.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와 발제자의 쫓점

발제자의 초점은 한국사회의 분열된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을 회개하며 성찰하고 우리사회의 화해를 통한 대동사회 실현에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제자는 우리사회의 분열에 큰 빌미를 준 기독교의 과거역사와 현재를 냉철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국회의원 총선(2020년,4.15)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경험이후 한국 기독교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한 관점을 피력하려는 것이다.

흔히 정치계나 종교계를 그 집단체들의 유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상적 모습을 총체적으로 압축하여 진보계와 보수계라는 용어를 즐겨쓴다. 진보와 보수정당, 진보적 기독교와 보수적 기독교계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라는 편리한 어휘는 그 개념규정을 하기 전엔 매우 부정확하고 애매모호한, 더 나아가 무책임한 단어가 되고 만다.

발제자는 우선 한국 '진보적 기독교'와 '보수적 기독교'간의 현실적 긴장갈등, 상호비방, 대화불통, 책임전가, 상호비판을 논하기 전에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두 집단의 신앙적, 신학적 특징을 불완전하게나마 포괄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두 집단 안에서도 세상의 포스트모던니즘의 이런저런 풍조, 자연과학자와 정신과학자들의 진지한 질문, 시급한 전 지구적 과제에 응답의무에 관하여 열린 태도를 취하거나 닫힌 태도를 취하는 두 집단으로 또 다시 대별된다. 기독교신자수를 1000만명으로 가정할 때, 결국 한국 기독교구성비를 100분율로 대별하면 열린보수(500만, 50%)와 닫힌 보수(100만,10%), 그리고 열린진보(300만,30%)와 닫힌진보(100만,10%), 이상 4부류집단으로 대별된다.

2. 한국 '보수적 기독교'의 특징 3가지.

1) 계몽주의 시대정신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한국기독교 문제

한국 보수적 기독교는 신앙고백과 신행(信行)의 궁극적 표준으로서 <성경의 절대권위>를 강조한다. 설교와 윤리적 권면에서 구약성경을 신약성경 못지않게 많이 강조하고 인용한다. 성경연구에서 근대이후 비평적 연구방법은 가급적 극소화 시키며 <성경무오설> 입장을 취한다. 결과적으로 진화론을 부정하며, 학계의 인문-사회-자연 과학자들과 학제간의 열린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닫힌 보수 기독교 집단은 진화론과 성경비평학을 수용하지 않고 종종 시대착오적인 계몽시대 이전의 독단과 독선을 기독교신앙의 본질과 혼동한다. <보존하고 지켜야 할 본질>(保守本質)이 예수복음의 핵심 곧 "하나님이 나라" 내용이 아니고, 교회사 속에서 형성되고 결정된 특정시대의 기독교 교리나(니케야 칼케톤신조등), 신학체계(칼빈, 루터, 웨슬레신학등), 현실적 교권질서(교단총회, 노회, 당회결정)를 절대시 하려는 경향이 있다.

2) 성숙이원론적 실재관, 자본주의 마성에 대하여 눈먼 기독교

한국 보수적 기독교 신도들의 기본적인 신앙태도는 이 세상 / 저 세상, 사회구원 / 영혼구원, 세속질서 / 거룩질서등 2원론적 실재관을 가지면서 강조점을 후자에 둔다. 보수적 기독교신자들은 설교를 통하여, 성서읽기를 통하여, 각종 집회를 통하여 저 세상, 영혼구원, 거룩질서를 더 중요시 하도록 훈련받고 세뇌받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크리스찬 삶을 둘러싼 현실적 삶의 구조와 현실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 세상의 풍조'에 완전 포위되어있기 때문에 2중적 윤리생활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닫혀진 보수집단에서는 '자본주의적 세계관에 몰입으로 가치전도가 일어난다.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세계관이 초기자본주의 건전성을 잃고 절제나 제어 불가능한 "냉혹한 자본주의", "두바퀴 자전거 자본주의", "자연파과와 생태계교란자 자본주의"가 되었다. 한국 기독교가 지닌 공통적 특징이지만 특히 열린보수적 기독교 대형교회는 현대문명의 이 근본적 딜레마에 고민이 부족하고, 유능한 목회자가 이룬 '종교왕국'에 안주하며 교회의 본질에서 완전히 탈선한체 대형교회 현실을 하나님의 축복결과라고 확신하고 독려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한국기독교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표현할만큼 현대문명의 근본문제의 뿌리가 되어있는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정치경제이념과 너무나 밀착하여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물신숭배-무한성장신화 종교로 거의 전락된 형국이다.

3) 냉전시대 사고에 고착된 반공 숭미주의 기독교, 포스트모더니즘에 자폐증 환자태도

한국사회의 분열의 단초는 도덕적 책임으로보면 결국 한국민 우리들의 몫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2차대전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세력 특히 냉전시대 국제정치, 군사적 대결, 남북의 분할점령, 6.25전쟁, 등등 그 뿌리가 깊다.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골격으로 하는 국가사회가 자리잡히도록 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의 공헌이 작지않았음은 부정 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기독교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펼쳐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국제정치

역학구도에 압도적으로 예측되어 숭미주의적 반공주의의 보루가 되었다. 반도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설립되는 전후과정에서 경직된 교조적 맑스레닌주의의 반종교정책으로 인한 기독교 박해경험, 3년동안 진행된 6.25전쟁기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의 피해는 소위 한국 보수적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에게 “경험적 반공사상”의 원형질이 되었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로 하여금, 매우 역설스럽게도 남북평화통일 화해협력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집단이 되게 만들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의해 받은 ‘집단적 트라우마’ 못지않게 북한 인민이 당한 미국의 무자비한 초토화폭격 과정에서 받은 ‘집단적 트라우마’가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핵무기로 무장한 군부 선도적 정치체계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냉전시대가 지구촌에서 살아지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공산주의국가들과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문화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 희생자인 당사자 남북한 한국민에게는 전쟁 후 70주년이 되는(2020) 올해에 이르기까지 상호적 개심과 화해 불능한 집단으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증오심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한국역사의 오늘과 미래운명을 한국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수치스런 현실에 대하여 한국민 모두가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 진보적 기독교의 특징 3가지

1) 교회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등 어느 정치이념에 예측되지 않아야 하며 ‘책임사회’(responsible society)의 실현을 위하여 부름받고 있다.

한국 기독교 1,000만 신도수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보적 기독교 특징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속하는 교회계열이다. 2차세계대전 참화의 방지에 무능하였고 무책임했던 교회의 책임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1948년 암스텔담에서 조직되어 형성되어온 그리스도인의 자기정체성 고백의 결과다. WCC의 신앙로선과 지향성은 한국교회협의회(KNCC)에 가입교단들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작지만 진보적 기독교의 목소리로서 특히 1965-1995년까지 30년동안 큰 영향을 종교계와 일반사회에 주었다. 그 일반적 특징은 ‘책임사회 강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오늘의 구원 강조’, ‘눌린자와 가난한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해방’ 등 이었다.

2) 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의 구현을 위하여 ‘정의와 평화’의 가치중시 못지않게 ‘창조질서의 통전성 회복’(integrity of creation)에 책임적이어야 한다(JPIC).

진보적 교회가 자연생태계의 위기를 자각하고 자연환경문제, 기후붕괴문제, 그리고 자연을 경제활동의 천연자원조달청과 그 폐기물 처리장으로 생각해온 ‘자본주의적 생산소비구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매우 늦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는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기획경제의 한계를 선언한 셈이어서 지구촌은 ‘신자유주의 체계’라는 새로운

그렇듯한 이념 이름표를 달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이념이 견고화된 지구촌사회가 실현되었다.

정치경제적 단일체인 유럽공동체가 출현하고, 세계무역기구와 IMF 등 국제금융지배구조가 실현되면서 기독교의 '지속가능한 사회' 이념이나 '창조질서의 회복'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럽공동체의 허약성을 민낯으로 드러내 주었다.

3) 진보적 기독교는 지구촌에서 꽃피어난 다양한 종교문화의 가치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되고, 그동안 배타주의적 이었던 기독교 전도 및 기독교 선교의 우월주의에 획기적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로마카톨릭교회가 제2차바티칸 공의회(1965)를 통해서 그동안 지녔던 독선 독단적 구원론신학을 재고하였고, WCC는 제네바 본부에 '종교대화국'을 공식적으로 설치하여 하나님과 성령은 역사적 종교형태로서 기독교라는 종파, 교회당 울타리, 신학적 교리에 제약받지 않고, 창조주로서 창조와 생명의 영으로서 온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고 선언하게 되었다.

줄여 말하면, 진보적 기독교는 제 세상/ 이 세상, 성/속, 영혼구원/ 몸의 구원, 개인구원/사회구원, 그리스도교교/ 이웃종교를 동시에 긍정하되 책임적 윤리행위가 이뤄져야할 실천의 장을 "오늘의 구원, 사회적 구원, 지구적 구원"에 일차적 강조점을 둔다. '우주신인론적 영성(cosmotheandric spirituality)함양을 새로운 우주시대의 성화론(聖化論)으로서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진보적 기독교 안에도 닫힌진보 그룹 혹은 신학집단이 있다. 열린보수적 기독교와 닫힌보수적 기독교가 '보수적 기독교'라고 칭하는 큰 테두리 안에 분류되면서도 그 지향하는 가치관과 신행(信行)에 큰 차이가 있듯이, 열린 진보적 기독교와 닫힌 진보적기독교 사이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 진보적 기독교 캠프안에서 '닫힌 진보적 기독교'란 매우 역설적인데 그들의 닫힘은 '초월적 실재, 초월적 세계'에 대하여 닫혀있으며 결국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적 이성의 한계 안에서 기독교 신앙(1.칸트)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할수 있다. 사후 신령한 몸의 부활신앙, 영계의 실재성, 초자연적 기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신성과 구원능력의 유니크네스'등을 부정하거나 간과하는 입장이다. 닫힌 진보적 기독교와 열린 진보적 기독교는 '진보적'이라는 점에서 통하지만 본질적으로 건너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4.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총선은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세우라 하는가?

"인간은 해석학적 동물이다". 인간을 "역사적 존재"라고 말할땐 인간존재는 개인이면서 공동체적 집단적 존재이며, 역사를 창조하면서 역사적 경험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는 존재라는 말이다. 인간을 해석학적 존재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와 사도 바울이 개종 전에 가졌던 유대교적 메시아관에서 "눈의 비늘"처럼 사물과 사건의 의미를 이해 판단하는 행위에서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 존재라는 말이다.

편견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선악이원론, 흑백이원론'이며, 조금 낮은 단계의 편견의 보편성은 '

진보 보수 진영논리로 나타난다. 인간은 자기가 습득하고, 경험하고, 학습당한 패러다임을 절대화하고, 자기와 다른 입장을 단죄, 비판, 백안시, 심지어 악마화한다. 인간은 스스로 이 동굴과 비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가능성은 3가지인데, 첫째는 종교적 회심경험이요, 둘째는 끊임없는 비판적 자기성찰이며, 셋째는 자연과 역사가 주는 패러다임전환의 충격이다.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는 전염병 대재앙과 깨어난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대의정치의 꽃이라는 총선결과로 인해 한국사회는 “충격의 카이로스”에 처해있다. 카이로스는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과 총선의 결과는 한국사회를 이념적으로 양분시키고 갈등관계로 몰아갔던 정치적 이념 편가름이 소모적 허구논쟁이었음을 드러냈다.

좌파/우파, 진보/보수,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성장주도경제/분배중시 경제, 등등 모든 형태의 이원론적 도식에 사로잡힌 갈등과 투쟁이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의 생명’과는 별 관계없는 공허한, 어리석은, 덜 계몽된 반생명적 논쟁이었음을 드러냈다. 생명을 위해서는 그동안 이념대립적 양편의 정책이 얼마든지 ‘패러다임 융합’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념과 국가를 위해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해 그것들이 있다.

김종인씨를 ‘비상대책위원회’ 수장으로 모신 보수 정치정당 안에서 작금 일어나고 있는 이념적 재구성 작업은 그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남북교류협력을 북한 퍼주기라고 매도하였고, 남북화해노력에 헌신적이었던 문익환 김대중 노무현씨를 빨갱이 앞잡이라고 비판공격한 주류세력이 한국기독교안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한국기독교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정치사회적 관점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기를 거절하면, 역사가 한국기독교를 버리고 갈 것이다. 냉전시대 구유물인 닫혀진 반공주의와 북한을 하나의 사회주의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흡수통일론이나 군사적 정복론을 꿈꾸는 닫힌 보수적 기독교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 싫던 좋던 유엔에 가입된 두 개의 국가현실체가 한반도에 엄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보수언론매체들과 기독교 수구세력들의 시대착오적 망상이 한국사회에 도리혀 좌우 이념투쟁과 진영논리를 가중시켜 민족과 사회를 분열시킨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은 깨어있는 지구촌 시민들로 하여금 근대이후 지난 300년간 서구사회와 지구촌을 지배해왔던 자본주의 경제원리와 신자유주의 이념이 더 이상 지탱가능하지 않으며 지구문명의 멸망을 초래할수 있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갖게하고 그 탈출적 대안을 모색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둘째번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심각성에 대하여 한국사회와 한국기독교는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치명적 타격을 입은 국가에 비하여 질병재앙에 상대적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질병재앙의 근본원인 중에 원인인 현대자본주의 경제제도의 근본수정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이다.

그러나 부정 할수 없는 진실은 신자유주의라는 무지개 색깔로 분장했을 지라도 현대자본주의는 그 본질적 속성상 구조적으로 무한경쟁, 과잉생산소비, 자연생태계파괴와 기후붕괴를 결과적으로 가속화시키는 체계이며, 자국의 경제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패권주의, 군비경쟁, 지역분쟁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가치체계와 삶의 구조는 너무나 치밀하고 견고하여 쉽게 부정하지 못하며 “적과의 동침”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 현대인류가 직면한 최대난제이다. 기독교 복음이 지향하는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이 자본주의와 본질적 친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의 이념적 선입견을 깨트리고 편견에서 벗어나는 과제가 시급한 것이다. 복음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다.

셋째, 코로나 19 대재앙과 4.15총선결과는 한국 기독교로 하여금 특히 달한보수적 기독교로하여금 미국에 대한 그동안의 사대주의적 숭미주의, 미국메시아니즘, 미국예외주의 신화에 금이하게 하였다.

미국은 4가지 얼굴을 가진 나라 이다. 청교도정신에 기초한 미국, 기독교적 휴머니즘이 강했던 정의와 자유 수호국가로서의 미국, 지극히 세속적 국가로서 국가이기주의와 세계 패권주의에 병든 미국, 개인의 절대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심한 인종차별과 빈부격차와 비인간화가 엄존한 타락한 국가로서 미국, 이상의 4가지 얼굴모습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국에 대한 환상은 한국 기독교의 건전한 성숙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달한보수기독교 집단의 대표적 사례로서 전광훈목사 추종자들과 지난총선에서 기독교정당을 내건 달한 보수집단은, 그들의 데모행렬과 군중집회 속에서 늘상 태극기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동시에 지참함으로써,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하여 혼란, 혼동의 극치를 느끼게 하고, 기독교 신뢰성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쳤다. 진보적 기독교계와 열린 보수적 기독교는 전광훈 목사를 중심한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기독교의 변질이라고 선을 긋지만, 세상사람들은 전광훈 집단의 뿌리가 기독교이며, 공동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 풀러신학교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1970-80년대 한국 기독교의 대형집회와 대형교회 무한성장신화론은 오늘날 뒤돌아보면 공헌보다 피해를 한국 기독교 체질에 수혈하였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촌 의식을 강화시켰고, 지구행성에 살아가는 인류종은 물론이고 다른 생명체 종들과 자연 그자체와 서로 유기체적 관계로서 존재하여 만물동체(萬物同體)라는 자각과 동시에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갖게하였다.

그동안 이웃종교들에 대한 기독교의 배타적 우월주의, 백인중심의 기독교 선민의식, 오로지 '개종'을 강조하는 타종교문화 지역에 해외선교는 그 타당성과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대화를 넘어서 상호 창조적 변화”(존 캡, Beyond Dialogue toward mutual transformation)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점점 확인되고 있다.

지구생태학자들과 지구기후학자들은 지난 6500만년동안 녹색행성 지구위에서 찬란하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꽃피었던 신생대가, 20만년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로 말미암아 특히 지난 300년동안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과잉생산소비 풍조로 말미암아 환경파괴와 기후폭등이 유발되어, 그 신생대가 급속하게 그 종말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종교들은 어느 종교가 더 우월하한 참 종교인가를 다투는 한가한 시간이 없다. 오로지 뜻과 지혜를 합쳐 금세기 말 안에 현실화될 산소부족, 기온폭등, 사막화, 식량부족등으로 동물과 인류가 대량으로 멸종될 현실적 위기에 대처할 실천적 협력이 중요할 뿐이다. 종교 간의 대화협력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지구상황을 놓고 볼 때, 한국 보수계 기독교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반이슬람종교 설교와 교인세뇌는 통탄을 금할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의 4가지 점에 집중하여 한국 기독교가 자기를 혁신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미래 마중물로 자기를 내어놓을 때, 한국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인 경우 한국 기독교는 쇠퇴와 멸망이 있을 뿐이다. "생명, 정의, 평화"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한국 기독교의 화두이어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열린보수와 열린진보간의 대화 협력 상호교류가 시급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한 자료]

1. 한국 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2. 손규태, 하나님나라와 공공성(대한 기독교서회, 2010)
3. 이삼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동연, 2020)
4. 존 B. 캡 지음, 한윤정 역편, 지구를 구하는 열가지 생각(지구와 사랑, 2018)
5. 서강대종교문제연구소 엮음, 한국여성종교인의 현실과 젠더문제(동연, 2014)
6. 이정배, "문명의 위기와 기독교 신앙(성서와문화, 2010.여름호)
7. 김준우, "지구적 기후위기와 크리스천의 선택"(성서와문화, 2010. 여름호)
8. 강성연, "코로나19 이후 문명과 사회의 생태적 전환과 삶이 변화"(기장목회자협의회,2020)
9. 동아일보, 오피니언, "분배중시 학현학파 전성시대"(동아일보,2020,5월)
10. 김누리, 오피니언, " 코로나 사태와 패러다임전환"(한겨레신문, 2020,5월)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역할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1.

한국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자해행위가 계속되는가?

도산이 지적한 것처럼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단결해도 우리 사회는 벌써 단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쪽”이 고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자신도 그 “지조”를 끝까지 지켜야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거룩한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 한 때 벌어졌던 “내 탓이요” 운동도 스티커를 만들어 자동차 뒤편 창문에 부착했다. 여기 모인 우리도 그럴 수 있다.

2.

2018년 여론조사기관 Ipsos가 BBC의 의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61%)으로 조사대상 27개국 평균 44%, 유럽 평균 20%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많은 한국인에게 정치적 견해는 단순히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이해가 엄청난 현실의 문제다. 물론 모든 정치 이념이 어느 정도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에게서 북한과의 관계, 공정성에 약한 전통, 미숙한 정치수준 등으로 이념의 차이가 일으키는 감정적 반응과 구체적인 삶에 가져오는 이해의 정도가 엄청나게 크다. 교육, 국방, 학문, 예술, 심지어 경제조차 정

치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한가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운명이 어느 쪽에 줄을 서는가에 따라 상당할 정도로 좌우되고 있다. 이념 갈등이 극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주목할 현상이 하나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 한국 사회에서 지난 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5%나 되어서 Economist가 “놀랍다” (remarkable)고 표현했다. 물론 한국인은 위기에 잘 단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처럼 갈등이 줄어든 적은 역사상 거의 없지 않았나 한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면 우리 사회에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3.

그런데 특이하게도 Ipsos의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종교간 갈등은 14%로 27개국 평균 27%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 고등종교들이 공존하는데도 한국만큼 종교간 평화와 협력이 잘 이뤄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오히려 각 종파 내부의 갈등보다도 적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외세에 시달리므로 형성된 민족주의적 감정이 강한 것과 상호간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최근까지는 한국 종교들이 정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때 진보성향의 개신교인들이 민주화나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치적 활동을 전개했으나 다행히도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화도 이룩되고 약자의 권익보호에도 일반 사회와 정치계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꼭 정치적으로 앞장 설 필요가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자 이번에는 반공사상이 강한 보수 기독교인들 일부가 극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선거를 통하여 현

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려 했다. 종교적 열정으로 무장된 이념적 정치활동은 한국 교회 자체의 분열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더 악화한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처로 여당이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을 것이다.

4.

어쨌든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최대 종교로 성장했고, 구성원의 숫자, 교육수준, 재정 능력에 있어서 비정부 집단들 가운데서 가장 강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다가 용서와 화해, 사랑과 희생이 핵심인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이고 존재의의이므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매우 필요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 자체가 매우 분열되어 있고 도덕적 권위를 많이 상실해서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교계 내 진보와 보수 간의 반목은 다소 줄어든 것 같으나 사회의 신뢰는 파산상태다. 지난 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들의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의 신뢰를 받는 반면에 개신교는 18.9%밖에 받지 못하고, 그것도 2009년에는 26.1%, 2013년에는 21.3%로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소금과 빛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통합에 나선다면 "너나 잘하세요!" 냉소만 받을 상황에 있다.

5.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통합을 시도하기 전에 그렇게 할 자격 혹은 능력부터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계 내 통합도 이뤄져야 하고 사회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즉 교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역사적 상황과 초기 기독교의 순수한 열정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한 한국 교회가 돈, 권력,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누릴 위치에 서

게 되자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개신교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속적 성공이 영적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만 것이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주위 이방민족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이었다면 현대 교회의 타락은 세상이 섬기는 돈, 권력, 명예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세속적 가치, 특히 돈의 가치를 상대화하지 않고는 어떤 교회도 순수할 수 없다.

6.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교계의 연합이다. 우파, 좌파 등 정치적 이념에서 초연해져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신의 이론만 객관적인 “학문” (Wissenschaft) 이고 그 외의 모든 다른 이론은 모두 “이념” 이며 “거짓 의식”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이념도 하나의 “우상”이고 특히 정치에 목을 매는 상당수 한국인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위 동족이 원하고 바랐던 정치적 메시아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쳤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최대연합체인 “복음주의 전국 연합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가 제정한 “국가의 건강을 위하여” (For the Health of the Nation)이란 공적 문서는 “신실한 복음주의적 정치 참여는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행동지침을 가져야 한다”면서 “생명존중, 가난한 자 보호, 가정보존, 인종정의, 성적순결, 자연보호, 평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들 다수는 Trump를 지지함으로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보수든, 진보든 이 정도의 행동지침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원칙들을 내 세우고 추구하되 이를 현실 정치와 연결시켜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국 교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이 대화모임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정치”는 “분열”을 함축한다.

7.

사회의 신임을 얻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실천이다. 앞에 언급한 기윤실의 설문조사

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구제 및 봉사활동 27.9%, 환경, 인권 등 사회활동 8.4%, 교육사업 4.2%라 대답한 반면 윤리와 도덕적 실천운동이라는 응답은 48.8%였다. 사실 한국 교회는 구제, 봉사, 인권과 환경운동 교육활동에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어느 정도 공헌도 했다. 그러나 그런 활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인데 거기에 실패한 것이다. 돈, 명예, 권력 등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우상을 버리는 길은 멀고 험하다. "많이 가지는 것이 선"인 (유동식 교수) 무속종교의 긴 그림자, 유물론적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문화, 이웃의 권리와 생명보다 나의 쾌락이 더 중요한 사회 분위기에서 욕망을 절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보통 신앙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 교회에 "비스킷"이 없어지는 것이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이 아닌가? 어차피 순수한 참 그리스도인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는 사회통합을 이끌 자격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김경재 교수 발제에 대한 논찬

배종석 (기윤실 공동대표)

김경재 교수님의 발제내용은 기독교를 보수와 진보로 대별하고 다시 열린 집단과 닫힌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와 진보적 기독교의 특징을 세 가지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4월 총선의 결과의 맥락에서 허물어야 하는 것과 세워야 하는 것들을 큰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교수님의 발제내용은 일반적으로 잘 읽혔고 또한 내용도 큰 틀에서는 무리 없이 수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찬은 발제내용을 기초로 더 보완되고 보충될 내용을 제시하여 대화거리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특별히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허구적 이념틀로서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김교수님께서 제안하신 허물 것과 세울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보수와 진보가 함께 도전 받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함께 대응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1. 한국 기독교 보수와 진보는 함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김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허구적 이념틀에 갇힌 진보-보수”를 깨고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 첫번째 큰 이유는 보수와 진보는 함께 도전 받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교수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보-보수의 구분에 얽매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에 소속한 구성원들을 보면 훨씬 더 다양해져 있을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있는 집단간 차이(between group variation)보다 (열린-닫힌 차원을 포함하여) 여러 요인들에 따른 집단내 차이(within group variation)가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보수와 진보가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며,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기독교인들이 앞에서 교리적 유신론자이지만 삶에서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고 형성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정체성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큰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를 사람과 돈을 가진 세력화된 집단으로 보고,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가까이하기 힘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정치인이 기독교를 의식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시하기 힘든 세력화된 집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일부 혹은 일부의 교회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귀속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기독교 보수나 진보 모두 역사적 이념적 틀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전근대주의(pre-modernism), 근대주의(modernism),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틀 중 하나 혹은 복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교수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닫힌 보수의 독단과 독선의 모습에서 전근대주의의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스 기니스와 레슬리 뉴비긴이 지적한 대로 근대성과 근대주의의 강력한 이념과 견고한 체계의 영향은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¹⁾ 개발경제시대와 함께 성장한 한국 기독교의 시장기반 자본주의에 대한 친화성, 소비주의, 그리고 초월성을 거부하는 자연주의적 성향, 이성에 기반한 도그마의 지배력 등은 근대주의의 강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는데, 포스트트루스(post-truth) 시대에 직면하여 참된 진리의 거부와 거짓된 사실이나 왜곡되게 해석된 사실의 확대재생산과 절대적 개념화, 취향이 맞는 사람들의 자기들만의 사회적연결망을 통한 사회세계의 형성, 실재성을 거부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구적 혹은 관념적으로 실재적인 것에 대한 강한 신뢰감 부여 등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념적 성향에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구별되지 않고 편승하고 있는 점들이 현저합니다.

셋째, 기독교인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의 변화에 기독교는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초기에 존재에 있어서도 도덕성과 성품을 갖춘 믿을만한 예수쟁이들이 많았고, 행위에 있어서도 교육이나 의료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이제는 존재에서도 행위에서는 뒤쳐져 있습니다. 사회는, 존재론적 원자주의가 주장하듯이 개인의 단순 집합도 아니고, 구조주의가 주장하듯이 개인성이 없는 사회구조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를 관계와 구조와 제도의 총체로 본다면 개인과 사회는 서로 환원되지 않는 두 층위를 이루는 구분된 실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기독교의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서 종종 사용되던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회복 기준은 둘 다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개인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의식변화들이 뚜렷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성도라고 주장하는 다음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대응은 느립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고,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적 참여가 부과된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사회 측면에서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개인과 구분된 실재로서의 사회 이해와 기독교의 기여가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1) 오스 기니스, 『선지자적 반시대성』, (이레서원, 2016);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IVP, 2007).

사회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해오고 있는데, UN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²⁾를 제공하고, 기업은 갑질이나 비윤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윤리적 및 사회적 책임 투자가 확산되고 있고, 또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단체와 사회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매우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 보수가 강조하던 신앙 인격과 도덕성은 약화되고, 진보가 강조하던 다양한 아젠다는 사회 전체가 대규모로 선점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 앞에 있는 한국 기독교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빠져 있는 것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2. 한국 기독교 보수와 진보는 함께 해결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의 높이(초월성), 깊이(내재성), 넓이(관계성) 및 길이(역사성)에 대한 충만한 형성과 발현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 존재나 궁극적 가치를 참된 실재로 인정하고 그것들에 삶을 맞추어 나가려는 초월성, 자신의 내면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참된 또는 본래적인 자아에 충실하려는 내재성, 보다 넓은 존재론적 맥락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려는 관계성,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역사적 의식 속에서 깨달으며 과거와 미래의 연결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역사성 등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속성이며, 이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보수와 진보는 이 네 가지 차원에서 그 정도가 다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보수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진보는 관계성과 역사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등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교수님의 지적에 따르면 단힌 보수는 타자, 약자, 자연, 다른 종에 대한 관계와 배려, 즉 관계성 차원이 매우 취약하고, 단힌 진보는 초월성 속성의 상당한 결핍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충만을 지향한다면 많은 부분 상호 이해와 소통과 보완적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회의 공교회성 확보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공공신학에 기반한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 내에서 허구적 이념틀에 갇혀 있는 것은

2) UN이 설정한 17개의 아젠다: (1) no poverty, (2) zero hunger, (3) good health and well-being, (4) quality education, (5) gender equality, (6) clean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 reduced inequalitie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15) life and land,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지극히 소모적일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성의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고, 또한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신념 있는 시민교양(convicted civility)”을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³⁾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어느 하나의 시민성만 강조하여 하나를 희생시키는 오류가 없어야 하며, 이웃에게 섬김과 희생과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폴 리콥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로운 제도 안에서 타자와 함께 그리고 타자를 위한 좋은 삶(good life with and for the other in just institutions)”을 누리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⁴⁾ 김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생명을 위해서는 이념 대립이 공허하고 사람을 위해 이념과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행복지수, 출생률, 자살률 등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공동선의 지향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평가됩니다.⁵⁾ 리콥르의 표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정의로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항구성과 영속성을 고려하고, 공동의 숙고(common deliberation) 과정을 통해 특정 의사결정이 미칠 장단기 효과를 파악하여 큰 기반적 틀을 마련하는 그런 고민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김교수님의 발제에 기반해서 한국 교회는 이념의 구분에 따른 진영에 상관없이 큰 도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교회 내의 다음 세대는 매우 다른 종(種)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규모와 속도에서 이전과는 매우 상이하고, 다원적이고 다층적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용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이념을 초월한 복음”의 실현이라는 우리의 과제는 중요한 것이기에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야 함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인격의 충만과 정직, 생명과 자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사회의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사랑으로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3) Richard J. Mouw, 『무례한 기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교양』, 홍병룡 옮김 (IVP, 2004).

4) Ricoeur, P. 1992. (First published in 1990.) Oneself as another. (Translated by K. Blamey). Chicago, IL and London, U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한국은 1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 OECD 36개국 중에서 30위를 차지한다(유엔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2019 세계행복보고서”, 2019.3.20. 목회데이터연구소,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2019)에서 재인용). GDP 기준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2위 전후를 하는 것과도 격차가 있다. 출산율은 OECD 평균이 1.68(2016)인데, 한국은 .98명(2018)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자살률은 2018년 기준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24.7명(인구 10만 명당)으로 OECD 평균 11.5명보다 매우 높은 상태이다.

손봉호 교수 발제에 대한 논찬

이상철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저는 논찬이란 논하면서 찬양하는 글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쓰여진 글을 읽고, 그 뜻을 밝히고, 공감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논찬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논찬의 찬은 기릴 찬(讚)이 아니라 도울 찬(贊)을 쓰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논찬은 단순한 주례사적인 비평이 아니라, 글에 대한 비판적지지, 내지 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저의 고민과 번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떻게 감히 손봉호 교수님의 글을 읽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의 논찬은 실패한 논찬이 되리란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봉호 교수님의 글에 대한 논찬을 하는 이유는 저의 텍스트에 대한 오독과 생똥맞은 질문이 혹시나 원본에 대한 다층적 읽기 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지점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손 교수님의 글이 지닌 미덕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의 부족한 배움과 얇은 성찰의 결과임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1.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속에서 손봉호 교수의 글은 한국교회의 폐부를 정확히 짚어내었고, 그 대안까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화의 주제인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에 매우 적절한 내용의 글이라 생각합니다. 손 교수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해야 할 한국교회가 자체 분열과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회적 분란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적 질서에 따른 교회의 개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둔 교회연합운동'과 '도덕적 실천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회연합운동이 현실정치와 거리를 둔 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손 교수의 주장은 기독교인의 현실참여에 방점을 두고 학문하고 실천해왔던 저에게 신선한 자극과 역설적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문득 <동물농장>을 썼던 조지 오웰이 말한 "가장 비정치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라는 말도 떠오르고, 요즘 핫한 사상가 중 한명인 자크 랑시에르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말한

진정한 변혁은 정치 그 자체에서 오지 않고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 즉 분투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터 도래한다, 는 메시지도 떠오릅니다. 결론적으로 손 교수가 말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둔 교회연합운동은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는 쾌락의 원칙을 넘어가는 지점을 상상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욕망의 법칙과도 과감하게 결렬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손 교수는 기윤실과 크리스찬아카데미간 연합운동을 도모하고자 모인 첫 자리에서 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은 아닐 것 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Radical은 '급진적인, 변혁적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Radical한 자리, 즉 '근본의, 기본적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저는 교회연합을 도모 하는 이 자리에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라는 손 교수의 일성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말로 들립니다.

2.

특별히 손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인상 깊게 다가왔던 구절은 도덕적 실천의 구체적 예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행동'과 '타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념의 시대가 저물고 거대서사에 입각한 실천의 강령들이 퇴조를 하면서 그 자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삶의 원칙과 태도들로 채워졌습니다. 벌써 한 세대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자본의 질서와 맘몬의 원칙, 그로 인해 야기된 야만의 현상학은 우리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586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간 윤리적 간극은 이러한 시대정신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인 언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근래 젊은 세대들이 윤리적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 덕목이 바로 '공정의 문제'와 '타자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관심했던 것은 정의의 문제였고, 정의를 향해 달려가는 변혁적 주체의 윤리였습니다. 그들을 언론에서는 586 세대니, 87년 체제니, 민주화세대니 라는 말로 규정하는데, 그 세대를 바라보는 현재 청년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고 따집니다. "선생님 세대들이 평생 정의를 추구했다고는 하나 현재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공정한가? 우리 청년세대들이 보기에 그것 역시 불공정한 그들만의 리그이다. 당신들이 변혁을 향한 강철같은 주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묻혀버린 작은 목소리들, 숨어있는 타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얼마나 그대들이 무지했는지 우리는 잘 안다. 하여 이제 우리는 선배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깃발을 들겠다."

작년에 조국사태가 터졌을 때 청년들은 광화문에도 없었지만, 서초동에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의 거대한 에너르기가 집결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들은 각자가 속한 작은 공간에서 목소

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성혐오와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를 반대하는 자리였고, 젠트리 피케이션으로 쫓겨나간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있는 곳, 반려견과 반려묘가 아픔 당하는 곳, 잘려나가고 파괴되는 자연환경이 있는 곳, 일상의 소소한 평화들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의 청년들은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작은 깃발을 올리고 어른들이 놓쳐버린 세세한 타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려고 애씁니다.

왜 공정이고, 왜 타자에 대한 감수성인가, 에 대해서 정치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양)관련 글에서 꼭 집어서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제안하는 글은 손 교수의 글이 저에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궁금합니다. 손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실천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가"는 타자본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태와 관련하여 이 두 가지 주제, 즉 공정과 타자성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손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뇌리에 남는 말은 '도덕적 실천'입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개인은 '하늘에는 별이 빛나듯 내 마음에는 도덕율이 빛난다'는 칸트식 정언명법을 숙명으로 알고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엄숙한 윤리적 주체입니다. 여기서부터 근대적 주체성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칸트 이후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사이 긴장은 윤리학의 오래된 테제가 되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는 윤리가 지니는 이러한 난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던 책이었습니다. 니버는 이 책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구분하면서 사회 문제를 대하는 개인윤리의 시선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책 제목만 보고, 인간은 도덕적이고 사회는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버가 도덕적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비교적 사회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개인이 일단 집단의 성원이 되면, 그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비도덕적 개인, 이기적인 개인으로 변모합니다. 근대적 주체와 이성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갖는 자유주의 계열의 사상은 인간의 합리성이 고양되면 집단적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했던 문제 해결의 방식이 '조정과 타협'이었죠. 그러나 니버는 집단과 개인 사이 힘과 권력의 문제에서 발생한 모순과 균열은 조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구조적 힘의 불균형을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개인의 도덕적 실천은 오히려 잘못된 체제를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손 교수님께서 평생 이런 윤리적 난제를 두고 고뇌하셨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의 해소 없이 개인의 도덕적 실천만으로 과연 사회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손 교수님이 개인의 도덕적 실천이 밑알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진실을 믿고 지금까지 외길을 걸어 오셨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손 교수님이 우리사회의 어른이고 지성이며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도덕적 개인의 실천만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의심이 갑니다. 저 같은 중생을 위해 힘과 용기가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화 녹취록 -

[손봉호] 내가 말한 것은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다. 수준 낮은 정치와 연관되는 것은 통합이 될 수 없다. 정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칸트의 윤리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칸트의 윤리는 행위자의 동기가 선하면 윤리적이다. 주체 중심적인) 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에 관심이 있다. 개인적인 윤리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윤리는 곧 정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니깐.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는 공평성인데, 성경의 정의는 약한 자들에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차등의 원칙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윤리는 그런 윤리를 뜻한다. 윤리는 적극적인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것에 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윤리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나의 구원/행복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신을 주게 된다. 이런 불신을 만든 상황에서 사회에 무슨 이익을 끼치겠느냐?

[채수일]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보수는 왜 그렇게 비난하는가?

[손봉호] 나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 적대시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채수일]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

[강호숙] 이성애를 뭐라고 하든, 동성애도 사랑으로 봐야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보수 목회자들은 왜 동성애라는 것만 꼭 집어 논하고 비난하는가?

저는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연합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현실정치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의견을 나누는 것이 통합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담론을 누가 발화하고 있는가를 봐야한다. 여성,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거세되고 있다.

[백소영] 강호숙 박사의 말에 손가락을 얹겠다. 김경재, 손봉호 교수님의 책을 보며 성장한 후학으로서 오늘 기대가 컸다. 특히 사회의 분열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었기에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을 다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늘 다뤄지지는 않았다.

발화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분열에 가지도 않고, 논쟁을 포기하고 자매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이미 교회 안에 먹을 비스킷이 이미 없다는 것이 논의되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박상철]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비신자들은 교회가 배타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열린보수 10, 닫힌 보수 40%가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로 분열과 통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해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열린 보수가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병외] 전광훈 현상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저들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는 똑같은 기독교로 인식했고,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외부에서는 왜 책임지지 못하고 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도 전광훈류에 접근하고, 대화하기 어렵다. 오히려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이 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세심하게 다가가며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손봉호]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함정과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민주당원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성경을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조국에 대해 민주당이 충분히 비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정의연 문제로 인해 시민단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서, 부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기독교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자유의지가 없다. 시작은 개인에게서 출발해야한다.

[백소영] 이념화된 조직(organization)의 경우는 자유의지가 없겠지만, 개인들의 연합으로서 공동체(community)는 개인 의지의 합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다. 우리 또한 모여서 대화하기에 집합적인 윤리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만 말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상당하다. 기독교는 수천년간 여자에게 크나큰 해를 끼쳐왔다. 시대가 이슈를 던져 교회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적으로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확장된 공동체 윤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백종국]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김경재 교수님이 제기한 미국의 영향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김경재] 백소영 교수의 지적이 아픈 곳을 찔렀다. 세대 갈등, 젠더갈등도 중요한 이슈지만, 오늘 첫 시간으로서 열린보수와 열린진보의 공통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키워드 위주로 제시했다.

계몽주의 -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이성의 빛 아래서 책임적인 판단과 사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농촌계몽운동은 진정한 계몽이 아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김정은, 김여정이 백두혈통이라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 이전, 무지한 행위들인가.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성서적이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서적 신자, 목사는 얼마나 될까?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없겠지만, 근본주의적 신앙과 행동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와서 사회의 공공성과 책임을 가지는 시민이 오히려 계몽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안재웅] 한국이 일제하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의 독립을 위해 선교사들, 국제 에큐 그룹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증된다. 민주화 시기에도 기독교 세력이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 문익환 목사가 북한에서 김 수령을 만나고 중요한 결단을 했음에도 기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못된 말을 했다. 요지는, 기회주의자들이다.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훗날 그것에 대해 말을 보태고 책을 써낸다. 자신의 신앙의 결단에 의해 행동을 표시한 모든 세력들과는 어울려 나갈 수 있어야겠다.

[장 상]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이 아닌 분열된 교회와 사회의 책임이 더 어울리는 시대이다. 다른 나라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다양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사회를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었다.

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해야하는가? 제 성향 때문에, 기장에서 보수적인 사람이고, 합동에서는 보수로 여겨진다. 우리의 관심은,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지성과 열정을 가진 이들이 어떤 교단 내에서는 꿈쩍을 못하고 소리를 못 낸다고 한다. 얼마나 정치적인 집단인지, 상식적인 지식이 교단 내에서는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재교육이 필요하다. 보수교단과 진보교단의 통합을 위해서는 피차 양보가 필요하다.

[김형국] 분열된 한국사회를 만든 것은, 일부라 볼 수 없는 자칭보수, 극우 전광훈 부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걱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성이 3명밖에 없는 것, 한국교회의 성도 수의 비례와 정반대인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순진한 보수주의자들이 극악한 극우에 놀아나며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그들을 구출할 것인가. 복음주의권 진보주의자들도 (무식하고 교활한) 극우와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에게 큰 질문이자 과제이다.

한국교회의 framework(종북, 공산주의자, 친대형교회...)에 많은 갈등과 편견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독교적 지성은 차치하고)사고능력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보수(극우)를 만들어내는 보수 교회를

어찌할 것인가?

로컬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에 있는 작은 차별과 가난과 소외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한국 사회, 교회를 논할 수 있는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식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주희] 제가 그 지역교회 목회자이다. 통합 소속 목사이지만, 성도들은 여기 있는 분들만큼이나 다양한 스펙트럼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한 교회를 특정 집단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 이슈를 이야기할만한 분들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타자화되고 있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 이슈와 신학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의 신학적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성도들의 분별력과 참여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한국교회에 데이터가 없다는 김경재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한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오류, 신학스펙트럼, 교회의 개혁 노력이 어떠한지, 수단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 판 위에 한국교회를 모두 올려놓고 한국 교회를 살펴야, 이후 통합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에 나오는 일부 조각 교회를 한국교회라고 볼 수 없다.

[이삼열]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본주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로 척도를 삼기도 한다. 과거에는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 주일성수를 무척 강조했다. 오늘날은 논의가 달라졌다. 지금은 보수-진보의 차이는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과 화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분화로 한기총과 NCKK가 갈라지기도 했다. 신학적 보수-진보가 정치적 보수-진보가 되어 친공, 빨갱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큰 문제이며 사회를 분열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수적이라 했던 고신은 신사참배 거부하는 등 앞서나갔던 부분이 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신학적, 정치적 보수 진보의 판단은 유동적이다.

[김종구] 목동에서 사역하는데, 500m안에 굵직한 교회들이 5-6개 있어 연합 모임에 가면 배경과 맥락이 달라 만나기가 꺼려지기도 했다. 오늘과 같은 모임이 다층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말을 하면 '저사람은 어떤사람'이라는 라벨이 붙어버린다. 중앙에서 이런 대화모임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서도 이런 논의가 가능하도록 생각해주면 좋겠다.

[박성철] 신학적 보수-진보와 정치적 보수-진보를 구분해야한다고 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신의 예를 든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야한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폐쇄성 배타성을 가진 교단이, 어떻게 극우 정치와 결탁하여 성공해왔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해온 40여 년간의 역사에 대해, 앞으로 좋게 가자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동성애, 이슬람 등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문제를 가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 신랄한 역사적 신학적 비판이 없고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

[박종화] 오늘 모임이 유익하다. 허나 이 대화모임은 이념이 아닌 이슈 중심,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성웅] 유일한 청년이다. 한국사회와 교회의 청년의 시각 말해달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런데, 교회에 청년이 없다. 있어도, 구조 속에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교리, 전통, 목회자의 권위에 눌리거나, 질리거나, 실망해서 청년들은 떠난다. 교회가 세속화 되어야한다. 교회 내에서 말하여질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이 안에서 이슈를 소화할 수 있어야한다.

[조성돈] 제가 공부했던 여정은 진보이나, 보수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높게 여겨 여기에서 쫓아다니고 있다. 평신도와 사회적목회(Missional Church)에 관심이 있다. 복음주의권이 에큐를 많이 따라가고 있고, 장상 선생님께서 서로를 바라보아야한다는 말에 공감을 했다. 이렇게 동글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형국] 한국교회사에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논의했던 일은 오래 있어왔다. 많은 책이 내 책장을 채우고 있지만, 이제 안 보게 된다. 이미 한국교회 비판은 많이 이루어져있기에, 우리의 논의는 그걸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듯, 이슈에 대해서는 사례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다. 현상적으로는 문제가 많고 전광훈류가 과잉대표되고 있지만, 비판적이지는 않다. 본질을 붙잡고 왔던 세력들이 기독교를 2천년동안 끌어왔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본질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과 그 사례들을 가지고 논의해보면 좋겠다.

[백종국] 사례와 대안에 대해 다음 모임에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보-보수가 아닌 열린-닫힌 비율을 보면 열린 비율이 80%로 훨씬 많기에 희망적이다.

[손봉호]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사례로 이야기하자, 예를 들어 환경, 북한, LGBT 등에 대해 이야기 하자는 것은 좋다고 본다. 진보 보수는 결국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비도덕'은 지적하고 경계해야 한다.

[김경재]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여러분의 훌륭한 생각과 제안을 들으며 생각하는 신도라야 교회가 산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시대는 생각보다 감정과 체험을 중시하는 세대인데 무슨

생각이냐 하겠지만, NO. 생각이 필요하다. 극우에 끌려다니는 성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크리스천아카데미가 기윤실과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신선한 시도가 각 지역에서 열리기를 꿈꾼다. (끝)